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11월 04일
(월요일)

강북신문 3면



31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이성희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31일 개최

1일까지 구정질문답변 실시...6일까지 7일간 진행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 다양한 구정현황과 지역내 민원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박성열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폐회 중 일상의 분주함에도 각종 자치센터별 경로잔치와 제17회 강북구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임시회 1차, 2차 본회의에 있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정에서는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정질문답변을 마친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11월 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7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주요안건으로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강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과, 구본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개최

6대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에 12명 의원 모두가 56건의 구정질문 나서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에 걸쳐 다양한 구정현황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박성열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동안 개최되는 제174회 임시회 1차,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밀도높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정에서는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제반 정보를 '2014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 수립심의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5건 등 총 7건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진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대 강북구의회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구민의 편익을 위해 질문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박성열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모두가 56건의 구정질문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등 병행하여 진행하였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과 구청공무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다. 특히 박문수 의원은 2건, 이성희 의원은 3건, 유군성 의원은 4건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집행부로부터 즉답을 들었다.

11월 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일괄질문에 대해 박경수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들의 답변이 이어진 후 의원들은 보충질의를 하였다.

김도연 의원은 주말에 체육단체에 대한 밀집되어 있는 다목적체육시설을 일반 주민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한 제기

및 주민이 이용가능한 방안 모색에 대해, 박문수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태만, 공직기강,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공무원의 줄서기 문제에 대해, 최선 의원은 구민운동장의 인조잔디 내구 연한 및 교체문제, 민방위교육의 성평등교육, 8구역 율리더의 미관문제 등에 관해 보충질을 하였다.

또 유군성 의원은 요양시설인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와 구비 투입의 절대불가 원칙고수 문제, 작동하지 않는

CCTV의 철거문제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부모교육과 가정양육의 적극적 대처문제,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진행문제,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필요성 제기, 미아동 258번지 건축민원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 문제, 오현어린이집 실시설계 변경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식 의원은 수유3동청사문제와 민간 업체에 비해 건축비가 1.5배 이상 비싼 관급공사의 부실 및 단가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누수방지 문제에 대해, 강남연 의원은 내 것은 내가 버린다는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구청의 홍보 및 협조에 대해, 이종순 의원은 8구역 청간립 시 독서실보다는 문화공간과 업무 위한 공간 마련 문제에 대해, 이백균 의원은 독감집중시 오래 기다리고 불편하므로 일정연령대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지역의 병원 접점 문제에 대해 보충질을 하였다.

한편 6대의회 의원으로써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나섰지만 의욕이 지나쳐서인지 특별히 밝히는 것이 참관한 방청객들의 평가였다.

다만 눈길을 끌었던 구정질문 중 박문수 의원의 공무원 노조의 공공사무실을 무상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와 강북구공무원노조의 적법성에 대한 법의 평등 적용문제와 이성희 의원의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의 건립 시 운영문제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